

화이트 스타일 치과 김준헌 원장 "거듭난 인생 인술로 보은"

기사입력 2005-04-15 16:00 최종수정 2005-04-15 16:00



의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화이트 스타일 치과 김준헌 원장이 치근형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화이트 스타일 치과 김준헌(41·소망교회) 원장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산다. 그를 신앙인의 길로 인도해준 은인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다.

5공화국 시절인 1984년 서울대 치대에 입학한 김 원장은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방황했다. 독실한 신자인 누나(김성신 외국어대 영어학과 교수)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으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런 그를 신림동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던 김시영(당시 반석교회) 목사가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식사로 라면과 찬밥 한 덩어리를 대접 받던 그를 김 목사의 여덟살 된 딸이 침을 삼키며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택은 당시 라면이 귀한 음식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은 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가족은 굶기고 제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이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목사님의 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서요. 제게는 방황도 사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원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는 치과의사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에 전념, 군의관과 서울 암사동 병원을 거쳐 2003년 서울 역삼동에 10평 규모의 화이트 스타일 치과를 개원했다. 신앙에 눈 뜨게 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김 목사의 가족을 대접하듯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김 원장은 손상된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 전문가다. 임플란트 시술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통형과 선진형 기법인 치근형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치아 뿌리 모양의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근형 시술이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적이다. 김 원장은 1997년부터 치근형 임플란트를 시술, 명성을 얻었다. 그는 또 덧니와 튀어나온 앞니 등을 가지런히 바로 잡아주는 치아성형에도 일가견이 있어 영화 배우 유오성, 가수 채리나 등 연예인 단골이 많다.

김 원장의 섬세하면서 정성스런 치료는 금방 소문이 났다. "경쟁이 치열한 강남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자리잡을 수 있었고 10평으로 시작한 병원이 2년만에 100평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하던 시절의 저를 매료 치는 대신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 치대 선후배들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치아교정 임플란트 발치 등 전공분야가 다른 5명이 진료부문을 나눠서 맡고 있는 것. 그는 "선후배들 중에서 제가 신앙심이 가장 부족한 것 같다"고 겸손해 하면서 "병원 수익의 사회환원에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 이름을 '화이트 스타일'로 지은 것은 세상을 좀더 환하게 밝히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정치과로 선정된 뒤 김 원장은 경찰관들에게 많은 진료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주)교원나라와 합동으로 소년소녀 가장 30여명을 여름방학 때 초청, 무료로 진료할 계획이며 소망교회 의료선교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재우기자 jwlee@kmib.co.kr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05&aid=0000201540>
